천국제(天國製) 생각과 말과 행동

(갈4:21~31)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제(天國製)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제(天國製)라는 것은 우리가 미제(美製)나 일제(日製) 중국제를 말할 때의 제품이라는 제(製)자를 써서 천국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 made in heaven 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2009년 MBC TV에서 “made in China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어준 책이 하나 있는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바로 “made in China 없이 살아보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A year without made in China” ‘중국산 제품 없이 1년 살아보기’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이 책은 미국의 경제부 출신의 ‘사라 본지오르니’라는 여기자가 썼는데, 이분이 2004년도에 크리스마스 선물 39개를 받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선물 39개 중에서 25개가 made in China라는 것을 새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한 번 해봅니다.
온 가족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2005년 1년 동안 made in China boycott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들의 가정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봄으로써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험이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신발을 사기 위해 매장에 갔는데, 세어보니 50켤레가 진열이 돼있어요.
거기서 중국산이 아닌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 신발로 이태리제를 겨우 하나 찾아서 구입하는데 값이 7, 8배에 달하는, 거기다 운송비까지 지불하고서야 그것도 2주 만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수명이 다 된 오래된 탁상용 스탠드 하나를 교체하는데, 그 전등 하나를 구입하는 데에 며칠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전등을 겨우 찾아 구해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부품들이 다 중국산인 거예요.
결국 이분의 결론이 뭐냐 하면, 1년 동안 made in China boycott을 하면서 생활해봤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더라 이겁니다.
비올 때 쓰고 나가는 우산, 이거 다 중국제입니다.
컴퓨터, 부품이 중국제 아닌 게 없습니다.
안방, 거실, 아이들 방, 부엌, 화장실, 심지어 정원까지 made in China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린 세상이에요, 허 참, 대단하지요?
좋게 보면 또 좋아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싸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made in China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 아닙니다.
‘made in the world’와 ‘made in Heaven’이 있어요.
우리는 made in Heaven으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의 삶이 made in the world, 천국제가 아니라 이 세상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가 나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교회에 일어난 문제, 율법주의나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천국제로만 가득 차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제이고, 뭐가 made in the world 세상제냐?

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made in China 없이 1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한 것처럼, made in the world가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A day without made in the world,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제라 이겁니다.
그리고 딴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사업 잘해보려고 승진해보려고 애쓸 것 없어요.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made in the world, 이 세상제가 포함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갈라디아교인들의 눈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길인지 아느냐?' 그걸 지금 계속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동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삭이고 또 이스마엘이에요.
그 외에도 여섯 아들이 있었지만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 대표적으로 두 아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두 방식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부인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한 채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수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본부인인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여종 중에 마음에 드는 여종을 택해서 아이를 낳아 후사를 잇도록 하자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갈과 연합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0살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니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함께함으로써 낳게 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라고 말하고, 경수도 끊어진 90살 된 할머니가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낳게 된 아기 이삭은 언약을 따라서 낳은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므로 이스마엘은 종 된 신분이잖아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초등학문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행동하라, 윤리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행동하라, 사회학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 이게 다 초등학문이고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종노릇 하는 거라는 얘기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게 종노릇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 매여서 사느냐 이거에요.
그건 이스마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인의 자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무질서로 빠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규정들을 어기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겠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화된 원칙에 매이지 않고 관습화된 원칙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자가 나타난다 이 얘기에요.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다시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믿음과 율법의 삶을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 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때 하갈은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갈은 율법이 낳은 이 세상의 시내산, 그리고 율법주의의 발생지인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비유되는 내 마음이 하갈, 여종으로 비유되는 육체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마엘이 무얼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마엘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노예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은 노예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은 노예로서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갈로 비유되고 있는 육체와 연합했을 때.
또 반대로 아브라함으로 비유되는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유자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은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옛날의 군국주의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꿈틀꿈틀 보이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때 마음이 여종 하갈과 같은 육체에 딱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경제문제나 나라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의해서 생기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내 마음을 휘감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에 쫓기면서, '아, 이 나라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과 행동과 말은 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식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제(製)라는 거예요, 세상제(製).

반면에 내 마음이 육체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관심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걸려있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연합한 상태를 비유로 삼아서 표현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상황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에 반드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면서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삭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자유자의 생각이고 자유자의 말이고 행동인데, 이게 천국제 생각, 천국제 말, 천국제 행

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de in Heaven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잊고서 육체에 마음이 딱 붙어있으면 made in the world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사도바울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내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천국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얘기냐?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김 부장님이 보여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김 부장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를 따라 만나는 김 부장님을 내 마음이 곧바로 판단해 들어갑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김 부장을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의 판단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김 부장님을 보시면서 육체를 갖고 계신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는 김 부장을 곧바로 마음으로 반응해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육체 때문에 만나고 보이게 되는 김 부장에 대해서 죽으시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 부장을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동들이 주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살고 계시는 동안에 생각이 made in the world, 이 세상제 행동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제 말을 해보신 적이 없고 천국제 생각과 말과 행동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래서 말하고 판단하셨으면 육체를 따라서 하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께 들은 것이니까 천국제 생각 아닙니까? 천국제 말씀이고.
이 천국제 생각과 말을 가지고 생활을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made in China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made in the world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꽉꽉 채우고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만은 made in the world 없이 살아보기에 성공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뭐 성공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지요, 그분의 존재의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바로 made in Heaven으로만 채워진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 육체가 만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천국제 말과 생각과 행동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다시 육체와 마음이 연합하게 됨으로써 육체에 종노릇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 문자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니 이게 대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made in the world가 있고 made in Heaven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과 기쁨과 평강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평안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제 평안이 있고 천국제 평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제 평안이 뭡니까?
내 통장이 두둑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세상제 평강이에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좋은 직장에 갈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 세상제 평안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천국제 평안은 통장 상관없어요, 아들의 대학 상관없어요, 내 사업상태 상관없어요, 내 지위 승진하고 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이력, 능력, 경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제 평안을 받고 볼 일 아닙니까?

만족도 그래요, 세상제 만족이 있고 만족 made in Heaven이 있는 거예요.
만족 made in Heaven은 경력, 남녀노소, 이런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제 만족을 얻고 볼 일 아닙니까?
외제 명품 빽 얻겠다고 애쓰고 외제차 타겠다고 애쓸 게 아니고, 우선은 천국제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 드는 것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이력이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 잊지 않고 생활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왜 놓칩니까?
먼저 천국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 보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주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문제 나라문제가 내 마음에 염려가 될 때, 그 육체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곧바로 반응하게 되면서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식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낳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요.
그러면 천국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육체가 놓여 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천국제 평안이 마음에 주어진 상태에서 천국제 생각이 나오고 천국제 말이 나오고, 천국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제 생각이 지금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제 판단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천국제 만족이 천국제 기쁨이 천국제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동안에 다~ 제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인 우리 마음이 여종인 하갈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천국을 의미하는 사라와 연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십자가로 죽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a day without made in the world’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 없이 하루를 살기, 이게 믿음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a day with made in Heaven’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복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자유인으로서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생활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기도하는 십자가 기도생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적 삶이, 자유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유,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마음은 전혀 육체가 느끼는 상황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 자유! 여러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미쳐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made in China 없이 살아보기, 이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made in the world 없이 살아보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현실이 되면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주어짐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